

행을 전부 차단한다. 다음날 아침, 텅 빈 집시 캠프를 찾은 터키쉬와 토미는 보석을 삼킨 개를 찾아 함께 돌아간다.

〈스내치〉와 가이 린치의 1998년 데뷔작 〈록, 스타 앤 투 스모킹 배럴스〉를 비교해보자. 내용은 변함없지만(런던 암흑가의 잔챙이와 거물들) 전달 방식이 달라졌다. 더욱 발작적이다. 〈록, 스타 앤 투 스모킹 배럴스〉가 충을 빌려온 펑크 뮤직이었다면(섹스 피스톨즈보다는 삼 69적인 펑크), 〈스내치〉는 프리 스타일 잼 세션이다. 그것은 요란한 카오스다. 되어가는 대로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스내치〉는 일군의 등장 인물을 양식화된 정지 프레임으로 소개하며 시작된다. 끝나고 보면 그것이 숨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뒤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놓고 벌어지는 이 아수라장은 액션의 잔치상처럼 보조도, 목적도, 필요도 없는 현란한 볼거리로 일관한다.

가이 린치가 여기서 전작에서보다 시야를 넓힌 덕분에, 〈스내치〉는 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 〈록, 스타 앤 투 스모킹 배럴스〉가 철없이 날뛰는 청년들만 끼워준 데 비해 〈스내치〉는 유대인, 흑인, 아일랜드인 집시, 러시아인 그리고 (아마도 국제 마케팅을 위해) 미국인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의도는 좋았건만 연출은 기대를 배신했다. 만화 같은 유대인 일행(실은 강도)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사운드 트랙에 맞춰 사무실을 헤집어놓은 뒤 좀도둑 집시들로 가득한 캠프장에 나타날 때부터 미덕은 깎이기 시작했다. 다원주의란 정책성에 빠지는 걸 피하려다 스테레오 타입이란 덩어리 걸린 것이다. 반감을 사기엔 모두가 사랑스럽게 그려졌지만, 내용적 관점에서 보면 다 영터리 인물이다.

문제는 가이 린치가 작가로서보다 감독으로서 훨씬 유능하다는 것이다. 카메라만 돌려주면 그는 거칠지만 매력적인 재능을 과시한다. 그런데 워드프로세서만 돌려주면 그는 타란티노와 TV 시리즈 「마인더」의 불행한 결합 같은 설왕설래(토미: 네 도넛에서 누가 잼을 뺐어? 터키쉬: 네가. 네가 빌어먹을 내 도넛에서 잼을 뺐어)를 동력으로 한 자위성 갱스터 환상에 빠져버린다. 데니스 파리나나 베니치오 델 로처럼 유능한 배우도 가이 린치의 억지 대사 앞에서 맥을 못 춘 것을 생각하면 브래드 피트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집시 복서 미키로 분한 그는 열간이가 되기를 감수하며 말을 씹고 뭉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일종의 '사운드'로 대사를 전환했다. 자신이 맡은 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거부한 그는 결국 〈스내치〉에서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존재로 남았다. 가이 린치는 〈스내치〉를 〈록, 스타 앤 투 스모킹 배럴스〉가 개봉하기 전에 썼다. 그래서인지 이 장난 같은 옹두사 미국은 전작에 비해 스케일이 커졌는데도 꼭 데뷔작 같다. '어때!' 하는 카메라워크와 '그래서... 그 다음...그래서... 그 다음'으로 정성없이 전개되는 사건들을 보란 듯이 결합한 과시용 영화인 것이다. 뒤로 가면 가이 린치는 관객의 감탄을 자아내는 데 급급해 큰 그림도 놓쳐버린다. 〈스내치〉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던져 놓고 그중 몇 개가 알아서 말이 되길 기대하는 영화다. 성공했다는 감독이 내놓은 기다리던 차기작이 이렇게 방명록 같긴 처음이다.

XAN BROOKS  
© SIGHT & SOUND

# Unbreakable

## 언 브레이크 커블

미국의 사운드 감독

**distributor**  
브에나 비스타 인터내셔널 코리아

**producers**  
M Night Shyamalan  
Barry Mendel  
Sam Mercer

**screenplay**  
M Night Shyamalan

**director of photography**  
Eduardo Serra

**editor**  
Dylan Tichenor

**production designer**  
Larry Fulton

**music**  
James Newton Howard

**production companies**  
Touchstone Pictures  
Blinding Edge Pictures

**executive producers**  
Gary Barber  
Roger Birnbaum

**production supervisor**  
Lynn Andrews

**production co-ordinators**

Thomas 'Doc' Boguski

**unit production manager**  
Sam Mercer

**location manager**  
Andrew Ullman

**second unit director**  
Larry Fulton

**assistant directors**  
John Rusk  
Scott Robertson  
Kathryn-Ann Oaks Shertzer  
Sonia Bhalla

**2nd unit:**  
Sherman Ward

**script supervisors**  
Diane Dreyer

**2nd unit:**  
Clair Cowperthwaite

**casting**  
Douglas Aibel

**associate:**  
Cindy Tolan

**Philadelphia locations:**  
Mike Lemon Casting

Mike Lemon  
*voice:*  
Barbara Harris

**2nd unit directors of photography**  
Steven Poster  
Kyle Rudolph

**underwater director of photography**  
Michael Thomas

**camera operators**  
Gordon Hayman

*2nd unit:*  
Scott Murphy  
Doug Holgate

**steadicam operator**  
Kyle Rudolph

**visual effects co-ordinators**  
Jodi Birdsong

**visual effects by**  
Secret Lab

**special effects supervisor:**  
Steve Cremin

*shop foremen:*  
Jay King  
Paul Sabourin

*foreman:*  
Jeffrey Cox

*technicians:*  
Christian Eubank  
Michael Frechette  
Jay Geller  
Joe Judd  
Ben White

**on-screen computer graphics**  
Jakon Trollbck

**puppeteers**  
Chris Nelson  
Scott Patton  
Gino Crognale

**art director**  
Steve Arnold

**set decorator**  
Gretchen Rau

**original comic book illustrators**  
Derek Thompson  
Brian O'Connell

**storyboard artist**

Brick Mason  
**costume designer**  
Joanna Johnston

**key costume supervisor**  
Pam Wise

**costume illustrator**  
Robin Richesson

**textile artist**  
Matt Reitsma

**key make-up artist**  
Bernadette Mazur

**special make-up effects**  
Kurtzman, Nicotero & Berger  
EFX Group

**hair**  
*key stylist:*  
Francesca Paris

*additional stylist:*  
Roy Bryson

**titles design/production**  
Imaginary Forces, LLC

**opticals**  
Pacific Title

**choir master**  
Jenny O'Grady

**score conductor**  
Pete Anthony

**orchestrations**  
Jeff Atmajian  
Brad Dechter  
James Newton Howard

**music supervisor**  
Susan Jacobs

**executive in charge of music, The Buena Vista Motion Picture Group**  
Kathy Nelson

**electronic score producer**  
James T Hill

**music editor**  
Thomas S Drescher

**score recordist/mixer**  
Shawn Murphy

**auricle operator**  
Richard Grant

**sound design**  
Richard King

**sound mixer**  
Allan Byer

**re-recording mixers**  
Lee Dichter



미국의 사운드 감독

Michael Semanick <b>supervising sound editor</b> Randle Akerson <b>ADR</b> <i>supervisor:</i> Michael Haight <i>recordists:</i> Jeannette Browning Rick Canelli David Lucarelli <i>mixers:</i> Doc Kane Tom O'Connell Charleen Richards <b>foley</b> <i>supervisor:</i> Patricio Libenson <i>supervising artists:</i> Gary Hecker <i>artist:</i> Matt Dettmann <i>mixer:</i> Lane Burch <i>editor:</i> Christopher Flick <b>football technical advisor</b> Roric Ruegsegger <b>stunt co-ordinator</b> Jeff Habberstad <b>2nd unit train co-ordinator</b> James Clark	Audrey at 20 <b>Chance Kelly</b> orange suit man <b>Michael Kelly</b> ER Doctor <b>Firdous Bamji</b> businessman <b>Johanna Day</b> saleswoman <b>James Handy</b> priest <b>Sally Parrish</b> ancient personnel secretary <b>Richard E Council</b> Noel <b>Damian Young</b> green army-jacketed man <b>Sherman Roberts</b> physician <b>Whitney Sugarman</b> physical therapist <b>Dianne Cotten Murphy</b> mother walking boy <b>M Night Shyamalan</b> stadium drug dealer <b>Sasha Neulinger</b> thermometer boy <b>Jose L Rodriguez</b> truck driver <b>Samantha Savino</b> peering girl on train <b>Ukee Washington</b> radio announcer <b>Susan Wilder</b> shoplifter <b>Greg Horos</b> slicked-hair man <b>Todd Berry</b> frat party boy <b>Angela Eckert</b> frat party girl <b>Anthony Lawton</b> hostage father <b>Julia Yorks</b> hostage girl <b>John Patrick Amedori</b> hostage boy <b>John Morley Rusk</b> security dispatcher <b>Joey Hazinsky</b> five-year-old boy <b>Bill Rowe</b> bar patron <b>Marc H Glick</b> EastRail engineer <b>Kim Thomas</b> hostage woman
--	---

1 0 6 분 미국 2 0 0 0 년 제작

1961년 필라델피아. 일라이저 프라이스는 쉽게 골절되는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다. 1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슈퍼 히어로 만화에 경도된다. 현재, 고교 시절 유명한 풋볼 선수였지만 지금은 스타디움 안전 요원으로 일하는 데이빗 튜는 아내 오드리와 별거하기 위해 뉴욕에서 구직 면접을 하고 돌아오다 열차 사고를 당한다. 승객 및 승무원 전원 이 사망한 이 참사에서 그는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난다. 프라이스는 이를 설명할 가설을 가지고 데이빗 앞에 나타난다. 바로 어떤 부상과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슈퍼

히어로의 능력을 타고났다는 것. 데이빗은 교통 사고로 부상을 당해 풋볼도 그만두었다고 얘기하지만, 프라이스의 주장에 매료된 아들 조셉은 아버지에게 힘을 시험해 보라고 한다. 프라이스는 경기장에서 위험해 보이는 관중을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데이빗의 초능력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결국 데이빗은 교통 사고 때 부상을 입지 않았던 사실을 고백한다. 단지 폭력적 스포츠에 반대하는 오드리를 위해 풋볼을 그만두는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나이가 어렸을 때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한 일도 털어놓는다. 이로써 프라이스는 물이 데이빗의 아킬레스건임을 유추해낸다.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데이빗은 기차역 군중 가운데서 지나치는 사람들의 범죄 행각을 지각하며 첫 번째 적수를 찾아낸다. 역사 관리인을 따라 그가 가장과 아내를 살해하고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둔 집을 찾아간 데이빗은 그를 죽이고 아이들을 구해낸다. 감사의 말을 전하며 프라이스와 악수한 데이빗은 그가 바로 열차를 전복한 장본인임을 깨닫는다.

〈언브레이크블〉은 미국에서 만화의 인기와 만화 수집가들의 열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는 수처로 시작한다. 자신도 모르는 초능력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인 이 영화는 그 후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그림의 형태를 빌린 서술 체계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로 거슬러 올라간다)과 기묘한 유아성(만화가 전부 슈퍼 히어로 이야기라는 착각) 사이를 왔다갔다한다. 브에나 비스타/터치 스톤에서 부화기를 거쳐 디즈니의 '재미난 동물들'엔 익숙해도 슈퍼 히어로는 거의 접해보지 못해서인지, 영화는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슈퍼 히어로의 전형(디즈니의 라이벌인 타임-위너와 출판사 DC 코믹스 소유인)들은 논외로 한 채 애매하게 사실만 늘어놓는다.

그렇다고 영화가 뼈격거린다는 뜻은 아니다. 골자만 보면 스탠 리-스티브 디트코의 스파이더맨적인 상황(보통 사람이 초능력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과 다름없는 이야기를 빌리며, 영화는 화려한 만화 전문가 일라이저 프라이스를 만나 자신의 초능력에 눈떠가는, 모범적이지만 불안정한 데이빗 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풀어간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슈퍼 히어로에 접근한 게 이 영화가 처음이라는 듯한 태도다. 사실 80년대 이후부터 모든 만화의 대전제였는데... 일례로 DC의 버티고 라인을 특징 짓는 스타일 역시 인간인 슈퍼 히어로를 불우한 환경과 매치시킨 것이었다. 〈언브레이크블〉뿐 아니라 샤말란의 전작 〈식스 센스〉를 관통하는 내향적 분위기, 비가 내리는 모노크롬의 느와르풍 배경 등은 진작부터 만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슈퍼 히어로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 후드 달린 방수포를 두르고 가긴 했지만, 데이빗 튜이 슈퍼 히어로 데이빗 튜으로 구체적 형상을 획득하는 것은 다음날 신문에 그의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이 실리면서다. 반대로 프라이스는 지하철역에서 끔찍한 낙상을 당한 뒤로 고뇌하는 이웃사이드에서 허약한 육체라는 인간 조건의 화신으로(본인마저 '미스터 유리'라고 자조한다) 위촉되어간다. 그래도 강렬한 사무엘 L 잭슨의 연기는 〈식스 센스〉적인 끝내기반전(그러나 이번엔 다소 난데없는)을 예고하긴 하지만... 대히트를 기록한 영화의

후속작을 비슷한 느낌, 같은 주연으로 만든 것은 모험이었지만 나이트 샤말란은 같은 주제의 의도적 반복으로 무리수를 극복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일가의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등 완벽하게 조율된 튜의 가정 묘사는 예술 영화 감독 출신다운 연출력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데이빗이 아버지가 슈퍼 히어로임을 증명하려는 아들 조셉에게 총을 내려놓게 하는 장면에선 가시방석 같은 서스펜스도 자아낸다.

〈식스 센스〉에서처럼 주인공은 남들의 사정을 꿰뚫어보고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러나 살인 미스터리의 해결이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던 〈식스 센스〉에서와 달리 여기서 데이빗이 처음 보는 연쇄살인범을 추적, 희생자를 구해내는 것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 인상적인 씬은 위협적으로 쏟아지는 폭우 가운데서 데이빗이 수영장 커버에 휘감겨 익사할 뻔하는 충격적 위기를 거쳐 진행된다. 사람들의 과거를 통찰하는 데이빗의 능력은 또 다른 힘 있는 씬을 연출한다. 군중 가운데서 그는 자신을 지나쳐 가는 행인들의 크고 작은 범죄들을 지각한다. 행동에 나설 만큼 중대한 적수가 나타날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을 뿐이지만, 그 일련의 이미지에 드러난 인간의 비정함과 타락상에 그가 크나큰 슬픔을 느끼고 있음은 분명하다.

영화를 서둘러 끝내버린 듯한 마지막 자막 때문인지 〈언브레이크블〉엔 왠지 다른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다. 초인의 정체성과 관련, 아들과 공모적 합의를 보긴 하지만 데이빗의 아내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는 데이빗이 마침내 소명을 찾았을지는 몰라도 (프라이스의 마지막 고백을 극복하기만 한다면) 그 소명을 따르기 위해선 아내에게 거짓을 유지해야 됨을 뜻한다. 슈퍼 히어로 만화에서 본격적인 스토리는 언제나 둘째 권에서부터다. 첫 권은 단지 슈퍼 히어로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한 것 뿐이다. 그러나 〈언브레이크블〉은 2권이 있을 거란 보장도 없이 시리즈의 첫 권 같은 인물화와 사건만 구성했다.

K I M N E W M A N  
© S I G H T & S O U N D



**Distributor**  
(주)미디어 필름 인터내셔널

**Producer**  
Kenneth Kokin

**Screenplay**  
Christopher McQuarrie

**Director of Photography**  
Dick Pope

**Co-producer**  
Russell D. Markowitz

**Editor**  
Stephen Semel

**Production Designer**  
Maia Javan

**Music**  
Joe Kraemer

**Production Companies**  
Artisan Entertainment  
presents a Aqaba  
Productions

**Executive Producer**  
Russell Markowitz

**Production Supervisor**  
Christine White

**Production Co-ordinator**  
Ryan Cooke

**Production Manager**  
Russell D. Markowitz

**Location Manager**  
Michael Dungan

**Post-production**  
*Supervisor:*  
Felicity Nove  
*Co-ordinator:*  
Jacquey Rosati

**2nd unit director**  
Kenneth Kokin

**Assistant Directors**  
William Paul Clark  
Dawn Massaro  
Susie Balaban

**Script Supervisor**  
Suzanne Bingham

**Casting**  
Lynn Kressel  
*Utah:*  
Cate Praggastis  
*ADR Voice:*  
Loop Troop  
Caitlin McKenna  
Terri Douglas

**Camera Operator**  
Ian Fox

**Digital Visual Effects**  
BFTR Productions

**Special Effects**  
F/X Concepts Inc

**Art Director**  
Thomas Meyer

**Set Designer**  
Linden Snyder

**Set Decorator**  
Les Boothe

**Storyboard Artist**  
Mark Bristol

**Costume Designers**  
Genevieve Tyrrell  
Heather McQuarrie

**Costume Supervisor**  
Lanny Sikes

**Key Make-up**  
Gina Homan

**Special Make-up Effects**  
KNB EFX Group Inc

**Key Hair**  
Erin Lyons

**Main/End Titles**  
Title House Digital

**Score Performed by**  
Seattlemusic

**Conductor**  
Joe Kraemer

**Concertmaster**  
Leonid Keylin

**Orchestrations**  
Steven Ariscot

**Studio Co-ordinator**  
Bonnie Reed

**Music Editor**  
Lis Richardson

**Mixing Engineer**  
Armin Steiner

**Recordist**  
John Burton

**2nd Engineer**  
Sam Hofstedt

**Latin Music Specialist**  
Guillermo Hernandez

**Soundtrack**  
"Rip This Joint" - The Rolling  
Stones;  
"Comin' on Thru" - Johnny  
Dilks;  
"Navidena/Holiday Girl",  
"Esperanza" - Casalando;  
"Fiesta" - Daniel Indart;  
"How to Make a Margarita" -  
Joe Kraemer;  
"Piano Concerto No. 23A  
K.488" - Vienna Mozart  
Ensemble, piano: Daniel  
Gerard

**Sound Mixers**  
Earl Stein  
Roger Davis

**Re-recording Mixer**  
Chris David  
Chuck Michael

**Recordist**  
Eddie Bydalek

**Engineer**  
Michael Morongell

**Supervising Sound Editor**  
Chuck Michael

**Lead Dialogue Editor**  
Ulrika Akander

**Dialogue Editors**  
Jane Boegel  
Barbara Boguski  
James Russell DeWolf  
Todd Niesen

**Sound Effects Editors**  
Nash Michael  
Jay Wilkinson  
Scott A. Jennings

**ADR**  
*Supervisor:*  
George Berndt  
*Loop Group:*  
Nicholas Guest

Margo Hara  
Luisa Leschin  
Sal Lopez  
Jonathan Nichols  
Dyana Ortelli  
Steve Staley  
Marcelo Tubert  
*Recordists:*  
Laverne Dewberry  
Rick Canelli  
Diane Lucas  
*Mixers:*  
Troy Porter  
Thomas J. O'Connell  
Greg Steele

**Foley**  
*Artists:*  
Alicia Irwin  
Dawn Fintor  
*Mixer:*  
David Betancourt  
Medical Consultants  
Dr Robert Katz  
Dr Lydia Hazan

**Stunt Co-ordinator**  
Gary Paul

**Technical/Weapons Adviser**  
Doug McQuarrie

**Cast**  
**Ryan Phillippe**

1 1 9 분 미국 2 0 0 0 년 제작

미국, 현재. 정자를 기증하려 불임 센터에 간 폭력배 파커와 롱보는 거부 치덕의 아이를 임신한 대리모 로빈의 행방을 알게 된다. 경호원 제퍼스를 제치고 로빈을 납치한 그들은 멕시코로 향한다. 로빈의 주치의 알렌 페인터로부터 치덕이 실은 범죄자며 아기를 되찾기 위해서라면(엄마는 어쩔 수 없더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은 그들은 몸값으로 1,500만 달러를 요구한다. 치덕 부인과 밑에 중인 제퍼스는 오백스와 그들을 찾아나선다. 치덕의 '선교자' 사르노도 그 뒤를 쫓는다. 모넨 총

Parker  
**Benicio Del Toro**  
Longbaugh  
**James Caan**  
Joe Sarno  
**Juliette Lewis**  
Robin  
**Taye Diggs**  
Jeffers  
**Nicky Katt**  
Obecks  
**Scott Wilson**  
Hale Chidduck  
**Dylan Kussman**  
Dr. Allen Painter  
**Kristin Lehman**  
Francesca Chidduck  
**Geoffrey Lewis**  
Abner  
**Mando Guerrero**  
Federale #1  
**Andres Orozco**  
Federale #2  
**Neil Pollock**  
interviewer  
**Sarah Silverman**  
Raving Bitch  
**Irene Santiago**  
sloppy prostitute  
**Jan Jensen**  
receptionist

격전으로 오백스가 죽고, 제퍼스는 로빈을 워턴 호텔에서 데려간다. 해산하기를 기다려 로빈을 없애고 아기만 데려갈 작정이다.

진통에 들어가기 전 로빈은 아기 아버지가 페인터라고 밝힌다. 파커와 롱보는 또 다른 총격전에서 부상을 입고, 페인터는 제왕절개 도중 제퍼스를 쏘아 죽인다. 사르노는 몸값과 부하들을 끌고 나타난다. 파커와 롱보는 다시 총격전을 시작하고, 페인터는 아기를 받는다. 치명적 부상을 당한 파커와 롱보는 사르노가 로빈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 치덕의 아내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린다.

《웨이 오브 더 건》에서 주인공과 악당의 구분은 실날같다. 그나마 착한 쪽인 파커와 롱보도 특하면 총이나 휘두르고 험박, 강도, 고문이 취미인, 생각 없고 윤리의식 없는 2류 갱이다. 그들은 첫 장면부터 한 남녀에게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 여자를치고, 나중엔 눈 하나 깜짝 않고 임신부를 납치한다("우린 용서받자고 온 거 아냐. 구원받고 싶은 생각 없어"). 이들이 도덕적으로 모호한 캐릭터라면 악당 쪽은 한술 더 뜬다. 보스 치덕과 깔끔하게 차려입은 하수인들, 치덕의 아내와 치덕의 아이를 배고 있는 대리모까지 모두가 딱 속셈을 갖고 있다.

《유주얼 서스펙트》(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각본을 쓴)에서 그랬듯이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유주얼 서스펙트》에 모든 문제의 답인 정체불명의 카이저 소재가 있었듯이 여기엔 모두로부터 한발 앞서 있는 사르노가 있다. '선교자'란 닉네임으로 통하는 사르노는 단지 아기를 회수하는 치덕의 해결사가 아니라 여러 줄기의 내러티브를 한데 꿰는 존재다. 따라서 거의 자동적으로 영화의 윤리적 중심이 된다. 그만이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캐릭터인 것이다.

맥쿼리의 화가 날 만큼 복잡한 플롯은 서부극이나 다름없는 《웨이 오브 더 건》에 성격을 부여했다. 총격전 사이사이에 하워드 혹스 영화에서 그랬듯이 인물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는 긴 막간이 들어 있다. 제임스 칸은 거기서 다혈질인 두 신세대 건맨에게 조언을 하는 부성적 윗세대로 등장한다(혹스의 1966년작 《엘도라도》에서 그가 맡은 역할의 전



도). 신인과 베테랑을 나란히 캐스팅한 것도 이런 세대 구분을 강조한다.

악덕 실업가 치덕은 리처드 브룩스의 〈In Cold Blood〉(1967)에서 킬러로 분했던 스코트 윌슨이, 사르노의 옛날 파트너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웨스턴에 여러 차례 등장한 제프리 루이스(대리모로 분한 줄리엣 루이스의 아버지)가 맡았다. 파커와 롱보가 멕시코 국경을 넘으면 맥쿼리는 꼭배기 플룻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화는 더 제의적이고 멜로드라마풍으로 된다. 이 마지막 릴을 만드는 데 영감을 준 것은 샘 페킨파의 〈가르시아〉(1974) 같다. 거기서 나이 든 가부장이 알프레드 가르시아의 목에 100만 달러의 가격표를 내걸었듯 치덕은 아이를 데려오는 자에게 소정의 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대리모 로빈이 깡패들을 산파 삼아 진통에 들어가고 의사는 어저할 줄 몰라하는 장면은 보기 드문 출산씬이었다. 맥쿼리는 아기만 태어나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감상적 결말을 피했고, 막판 총격전은 스파게티 웨스턴이 그랬듯이 일체의 개연성 없이, 스타일을 위해 스타일화된다. 그렇다고 폭력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감감된 것은 아니다(파커가 팔에서 유리 파편을 뽑아내는 장면은 특히 토할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폭력씬을 동반한 서정성과 냉소적 유머는 과시적으로만 보이던 복잡한 스토리에 화려하면서 깊이 있는 클라이맥스를 제공했다.

Geoffrey Macnab  
© SIGHT & SOUND

마지드 마지디 감독

Bacheha-Ye aseman

천국의 아이들

수입 태원엔터테인먼트  
배급 (주)투브엔터테인먼트  
각본 마지드 마지디  
제작 모하메드 에스핀디아리  
아미르 에스핀디아리  
제작사 카눈(청소년&아동 지능개발 연구소)  
촬영 피비즈 말렉지데  
편집 하산 하산더스트

음악 아둘라 라자피  
마케팅 R&I 커뮤니케이션  
출연  
아미르 파르크 하스미안  
알리  
바하레 세디키  
자라  
나피세 자파르-모하메디

마하레 세디키, 아미르 파르크 하스미안



로아 모하메드 아미르 나지 알리의 아버지 페레시테 사라반디 알리의 어머니

베호저드 리피 트레이너 다리우쉬 모크타리 알리의 선생님

88분 1999년 이란 제작

테헤란 남쪽의 가난한 가정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생 알리는 엄마의 심부름을 갔다가, 금방 수선한 여동생 자라의 구두를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않게 과일 상자 사이에 넣어 놓은 신발을 넘겨주어 아저씨가 들고 가버린 것이다. 여동생의 한 켤레뿐인 구두를 잃어버리면서, 자라가 어떻게 학교에 갈까 생각하며 알리는 눈물을 글썽인다. 집에 새 신발을 살 여유가 없다는 걸 아는 알리는 여동생에게, 신발을 꼭 찾아줄 테니 그때까지 자신의 운동화를 함께 신고 다니자고 부탁한다. 그래서 오전반인 자라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오면, 알리는 그 운동화를 신고 다시 학교로 전력 질주한다. 어느 날 알리는 지각을 하고 교장 선생님께 찍힌다. 하지만 알리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이리저리 둘러대며 식은땀을 흘린다. 알리와 자라는 오전반과 오후반 사이에 언제나 골목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시간의 여유가 별로 없어서 늘 고생이다. 그러다 자라가 운동화를 개천에 빠뜨린 날, 알리는 또 지각을 하게 되고 몰래 학교에 들어가다 다시 교장선생님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는다. 퇴학의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담임선생님 덕에 간신히 모면한다. 자라 역시 고생은 마찬가지여서 오빠가 지각할까 두려워 시험도 보는 등 마는 등 급하게 달려오기 바쁘다. 이렇게 운동화 한 켤레를 나눠 신게 되면서 두 아이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라는 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구두를 신은 다른 여자아이 목격한다. 이리저리 관찰해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구두임을 확신한 자라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오빠와 함께 그 아이의 뒤를 추적한다. 그러나 그 소녀의 아버지가 장님이며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집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매는 구두를 돌려 받

으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자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다. 여전히 운동화를 갈아 신으면서 등하교하는 생활이 계속되던 중, 알리는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눈이 번쩍 뜨인다. 알리는 대회에 참가해서 운동화를 타기 위해, 체육선생에게 꼭 출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한다. 체육선생은 처음에 알리가 너무 어려서 무시했지만, 알리가 가볍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알리는 매일 동생과 신발 때문에 골목 사이를 이어 달리면서 놀람도둑 실력이 붙은 것이다. 알리의 속도에 놀란 선생님은 그를 학교 대표로 내보내고, 대회에 나가게 된 알리는 자라에게 꼭 3등상인 운동화를 타 오겠다고 약속한다. 대회가 시작되고 전국에서 몰려온 아이들과 함께 알리는 경기에 일한다. 말끔한 튜닝과 반짝이는 스파이크로 무장한 어린이 육상선수들 사이에서 남은 서츠와 바지,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은 소년의 모습은 왜소하고 초라하다. 하지만 알리는 이를 악물고 달려 그만 1등을 하고 만다. 다들 알리를 칭찬해주지만 그는 운동화를 타지 못했다는 생각에 웃으면서도 울 수밖에 없다.

명백히 키아로스타미의 그림자 안에 자리한 〈천국의 아이들〉은 '내 동생의 신발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묻는, 착한 남매의 악전고투에 관한 영화이다. 〈천국의 아이들〉의 바로 이전 작품인 〈아버지〉(1996)를 촬영하고 있던 마지드 마지디는, 어느 날 친구의 방문을 받고 그로부터 신발이 떨어졌지만 부모에게 새 신발을 사달라기가 미안한 한 켤레를 나눠 신었다는, 이웃집 애들 얘기를 전해 듣게 되고 이내 영화를 결심하였다. 한편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란 교육제도의 현실은 이 영화의 주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미래 맥스를 통해 미국에 배급된 〈천국의 아이들〉은 이란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에 노미네이트되었고, 〈운동화와 빨간 금붕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개봉되어 「키네마 준보」가 선정한 1999년도 베스트 3위 영화로 뽑혔다. 이렇듯 비전문 연구자들의 기용과 더불어 현실과 허구 사이의 자유로운 혼용을 보여주는 이란영화들의 때사로운 휴머니즘을 '키아로스타미 이후' 라고 명명한다면 〈천국의 아이들〉

역시 사회의 부조리를 은연중에 다루면서도 냉소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도덕주의에 입각해 있다. <천국의 아이들>을 두고 「시카고 선 타임즈」의 로저 에버트는 “넌자 거북이와 파워 레인저와 폭력 비디오 게임의 본고장을 부끄럽게 만드는 달콤함과 순수를 발견한다”고 말했다.

2000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된 이란 다큐멘터리 <우호적 설득: 혁명 이후의 이란영화>에서 감독 잠쉬드 아크라미는, 수많은 이란의 현역 감독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란에서의 영화 작업이란 걸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갈등 속에서 한마디로 체제와의 투쟁이었다고 말한다. 이렇듯 이란영화들의 소박한 도덕주의의 이면에는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반감과 극복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마지드 마지디 역시 자신의 영화들을 통해 줄곧 이란의 현실에 천착해왔고, <천국의 아이들>도 이 변방의 아이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아내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삶의 고단함을 슬쩍 밀어 넣는다. 1992년에 장편 데뷔작 <바둑>으로 칸영화제에서 소개되었던 마지드 마지디는 줄곧 어린이를 내러티브의 중심에 놓고 이란의 고단한 현실을 이야기해왔다(어린이를 소재로 다루면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수월하다고 그는 말한다). <바둑>은 불우한 어린이에 대한 영화였고, 토리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아버지> 역시 주인공인 메롤라라는 14세 소년이 아버지를 잃고 의붓아버지와 벌이는 갈등이 주된 내용이다.

<천국의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그와 동세대 감독인 자파르 파나히의 <마지디가 한 살 더 많다> <하얀 풍선>(1996)을 연상시킨다. <하얀 풍선>이 라스트씬에서 남매가 떠나고 난 자리에 아프칸 소년을 쓸쓸히 남겨놓으면서 이란 사회의 모순을 이야기했다면, <천국의 아이들>은 유일한 이용해 정원 손질 일거리를 구하려 다니는 알리 부자(父子)의 하루를 통해 이란 내의 계급의식을 기묘하게 드러낸다. 정원손질용 장비를 구한 아버지는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 테헤란 시내에 있는 호화주택을 돌며 일거리를 찾는다. 그러나 그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대한 대문의 인터폰을 통해 계속 거절당할 뿐이다. 알리의 재치로 일거리를 구한 아버지는 드디어 정원 일을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알리는 주인 집의 어린이기를 돌본다. 힘든 하루를 보낸 알리 부자는 트럭을 얻어 타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카메라는 이란 신도시의 위압적인 고가도로와 잘 뻗은 도로를 이질적으로 드러내며 그들을 풍소토로 잡아낸다. 영화 속에서 이 시퀀스는 굉장히 독특한 풍경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마치 서울로 비교하자면 변두리 산동네와 강남 청담동의 차이처럼 느껴진다. <천국의 아이들> 속에서 '영화 속의 영화'이자, 명백히 <자전거 도둑>에 대한 오마주인 이 시퀀스는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이란 현실에 대한 미묘한 정치적 논평과도 같다.

사실 어린 남매가 그토록 집착해 마지않던 운동화는 영화 속에서 맥거핀과도 같다. 실제로 알리와 자라는 잃어버린 구두의 행방을 알아냈으면서도 더 가난한 집의 아이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포기한다. 이미 어린 그들도 이란 내의 빈부 격차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천국의 아이들>은 한 착한 남매의 '말 못할 사정'을 통해 이란 사회의 전반적인 궁핍함과 폐쇄성이 어떻게 어린이들에게까지 체현되는가를 보여준다. 못되거나 얽매 보이는 부모가 아닌

데도 구두의 분실에 대해 함구하면서 미련한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고, 동생에게 3등 선물을 안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1등 수상이 안타까워 머뭇거리느 오히려 모습은 오히려 초현실에 가깝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금붕어들이 상처투성이인 알리의 발을 위로하듯 쓰드듬는다. 동세대 이란 감독들이 현실과 허구의 긴장 사이에서 형식적 고민을 이어왔다면, 마지드 마지디는 이란의 고된 현실 위에서 그 형식마저 넘어서는 따뜻한 시선을 보여준다.

글 주 성 철 기 자  
© K I N O



제작 ㈜제이알 픽처스 공동제작	스틸 서원삼
제공 코리아 픽처스㈜	포스터 염승호
각본 광경택	무술감독 신재영
촬영 황기석	홍보 영화방
조명 신경만	광고 ㈜세네라인
편집 박국지	
동시녹음 김봉성	출연
미술 오상만	장동건 한동수
의상 옥수경	유오성 이준석
분장 정남경	서태화 상택
헤어 유은희	정운택 중호
프로듀서 현정림 조원장	김보경 진숙
특수효과 김재민 Effekt	주연 준석 아버지
특수분장 서주연	기주봉 콧수염

115분 2001년 한국 제작

1970년대 말 부산, 아이들이 매캐한 흰 연기를 내뿜는 소독차를 따라 달려간다. 네 명의 소년들, 준석, 동수, 상택, 중호는 동네 친구들이다. 바다거북과 아시아의 물개 조오런이 수영대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에 대해 티격태격하는 이 아이들은 뿔뿔이 다른 중학교로 흩어졌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난다. 그세 아이들은 많이 달라져 있다. 아버지가 조직폭력배 두목인 게 콤플렉스인 준석은 학교 짱이 되었고, 장의사 집 아들 동수는 학교 부짱이다. 평범한 집 아들 상택은 전교 몇 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다. 중호는 까불거리고 놀기 좋아하는 약방의 감초 같은 아이이다. 네 친구들은 인근 여학교의 축제에 몰려가 노래 서클 레인보우의

공연을 본다. 동수와 상택은 모두 싱어 진숙에게 넋을 빼앗긴다. 준석은 그런 동수의 마음을 알면서도 상택이를 진숙과 만나게 해준다. 동수는 준석에 대해 항상 자신은 뒷전이라는 게 불만이다. 선생님에게 얻어맞던 준석과 동수는 교실을 박차고 나와버리지만, 상택의 설득으로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진다. 극장에 몰려간 네 친구들은 단체관람 온 타학교 학생들과 맞붙어 패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사건으로 준석과 동수는 퇴학을, 상택과 중호는 정학을 당한다. 상택은 집에서 돈을 훔쳐 준석에게 간다. 준석은 그런 상택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

시간은 흘러 상택과 중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오랜만에 찾아간 준석은 그사이 어머니를 잃고 마약에 빠져 있다. 상택은 그런 준석에게 점퍼를 벗어주고 온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상택은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나려고 한다. 준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준석의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의 염을 했던 동수는 그 자리에서 준석에게 세를 넓혀가고 있는 신흥조직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한다. 90년대 초, 이제 준석과 동수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대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동수와 그의 조직원들은 준석의 조직에서 경영하는 냉동창고로 찾아와 준석 쪽 패거리들을 잔인하게 죽인다. 상택이 떠나는 날이자 준석의 아버지 제삿날, 홀로 동수를 찾아온 준석은 동수에게 하와이로 잠깐 떠나 있으라고 하지만 동수는 거절한다. 준석이 나간 후, 상택을 배웅하기 위해 나선 동수는 클럽 앞에서 살해당한다.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준석은 3년간 피해 다니다 경찰에게 잡혀, 법정에서 준석은 자신이 동수를 죽였다고 시인한다.

커다란 고무 튜브에 끼안 머리통 네 개가 응기증기 매달려 있다. 왓지떨었던 소리로 사라지고 푸른 바다는 망망대해다. 어쩌면 너무 멀리 왔지도 모른다. 그중 한 아이가 묻는다. “아시아의 물개 조오런하고 바다거북하고 시합하면 누가 이기겠노?” 아이들은 자못 진지하게 그 결과를 두고 옥신각신이다. 아마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20년간의 기억과 우정에 관한 이 이야기에 (말 그대로) ‘푸욱’ 빠져들거나, 혹은 계속해서 불편한 거리감을 가지며 갈라기 시작하는 것은 이 첫 장면부터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이다. 거부이거나 침잠. 그것은 시간의 굵이를 돌아 기억의 갈피 사이사이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그 어떤 공감의 파장을 위에 서고자 한 광경택 감독의 이 세 번째 영화 <친구>가 바로 그럼으로써 보는 이의 내밀한 기억들, 감정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빛 바랜 사진첩을 뒤지는 행위란 그 자체로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또는 누군가 사진첩을 뒤져 보여줄 때, 그것을 옆에서 보는 자들은 각자 자신의 상념을 더듬는 법이다.

광경택 감독은 정말이지 여기에서 그의 진심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이다. 한편으로 익히 알려진 것처럼 자신의 기억을 끌고 들어와 그것을 재구성하며 그는 이 사실을 거의 그대로 드러낸 채 가능한 한 자신의 기억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그가 기억을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정확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험을 영화적 허구 장치 속으로 어떻게 끌고 들어오느냐의 문제도, 어쩔 수 없이 주

관적이며 미화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억의 본질에 관한 문제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 하나하나의 경험에 불려일으킨 자신의 감정에 관해, 그것을 재구성하고 있는 기억 앞에 놓인 자신의 감정에 가능한 한 정직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광경택 감독의 분신인 선택은 이 네 친구의 이야기, 더 정확히는 죽음으로 끝장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두 친구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그의 인도에 따라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자살한 기억에 박장대소하고, 쓰러린 운명에 눈물 흘린다. 정확히 선택은 감독의 분신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눈을 통해 진행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보는 것은 기억에 관한 광경택 감독의 감정이다. 선택은 그저 텅 빈 분신일 뿐이다(왜 이 영화 속에서, 준석과 동수를 바라보는 선택이 그들 내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방관자의 시선만을 유지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거꾸로 인물들을 적당히 스테레오 타입화시키는지를 비판하는 것은 따라서 이 영화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 비어 있는 기표의 존재는 바로 그림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속을 계속해서 채워 넣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 순간 각자의 기억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 안으로 침투한다. 그 때 이 영화를 보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재구성된 기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시키는 행위와 겹쳐지는 것일 게다(사족처럼 덧붙이자면 사실상 이 영화 속에서 기억에 관한 시선은 아주 나이브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또한 이 영화가 불려일으킨 감정의 파장들,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힘일 것이다).

〈친구〉의 성공은 단지 이 영화가 노스텔지어를 자극한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되기에는 부족하다. 노스텔지어라는 말에 포함되는 보편타당한 정서(여기에는 사실 동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이들을 자극시킬만 한 것이 거의 '포진' 되어 있다. 「성문종합영어」, 회수권 10장으로 11장 만들기, 방과 후 물려 앉아 편으로 굶어대던 뽕기, 롤러스케이팅장, 방역차, 버스 안내양, 색 바랜 삼류 영화관 간판... 그것들은 얼마나 즉각적으로 살갗에 와닿으며 추억을 되새김질하게 하는가)를 넘어서 수많은 개인의 기억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침입해 들어온다. 〈친구〉는 지나치게

성공하였다.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정서 속으로 다종다양하게 분화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영화가 불려일으키는 노스텔지어는 가능한 공통의 함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공명을 일으키는 순간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친구〉는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실제의 공간을 지나가지만(그러니까 소위 박통 시절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외친 문민 정부까지를 지나지만) 그 안에 어떤 사회적 정황도 삭제되어 있다. 대신 아주 세심한 기억력으로 복원된 사소한 소품들이 배치된다. 이 모든 것은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을 매우 '감상적'으로 만든다. 감상적이란 중립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노스텔지어의 정체는 두 가지이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공간과 시간이 공모하는 노스텔지어 위에 상상적 원형으로서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순간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꽤나 미묘하게 될 것이다. 실제의 장소 부산에서, 그리고 극단적으로 사투리를 통해 지역성을 드러내며 영화는 그곳의 정서를 담아낸다. 그런데 잠깐, 그곳의 정서라니? 공간에서 실제 지명을 가진 장소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순간, 이곳은 실제의 '장소'이지만 기억이 제 몸을 부러놓은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장소이나, 아는 듯한 장소이고(다시 한 번 여기는 바닷가 도시이자 제2의 도시 부산이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노스텔지어의 시간이 끝나면 이번에는 사나이들의 의리로 쌍절곤의 향수를 반추시킨다. 그 순간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 반응하는 그 일관된 성차의 차이이다. 그것은 아마도 이 영화가 부여하는 가치가 중성이 아닌, 그 앞에 모두 괄호 친 남성을 부여받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남자) 친구, (남자들 간의) 우정, (남자들 간의) 의리. 〈친구〉를 보는 여성과 남성 관객들은 서로 다른 의미에서 괄호를 인식한다. 노스텔지어의 정체가 두 가지라는 것은 그 순간에 등장한다. 여기에서 우정이란 상상적 원형이라는 점에서(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상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형적 상태)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수사이다. 아마도 (소위) 대박이 터진 이 영화가 좀더 넓게 이야기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이 순

간부터일 것이다. 〈친구〉는 그것의 의도와 상관없이 극단적인 젠더성을 드러내는 텍스트로 전이되는 것이다. 대중 영화에서 그것이 매혹을 불려일으키는 순간은 말 그대로 '반응'이며, 그것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들이어 어떤 형체를 띠어가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친구〉는 점점 더 흥미로워진다.

글 이영재 기자  
© K I N O



캐스트 어웨이

**Distributor**  
CJ 엔터테인먼트

**Producers**  
Tom Hanks  
Jack Rapke  
Steve Starkey  
Robert Zemeckis

**Screenplay**  
William Broyles Jr

**Director of Photography**  
Don Burgess

**Editor**  
Arthur Schmidt

**Production Designer**  
Rick Carter

**Music/Music conductor**  
Alan Silvestri

**Production Companies**  
DreamWorks Pictures  
and Twentieth Century  
Fox present an Image-  
movers/Playtone  
production

**Executive Producer**  
Joan Bradshaw

**Associate Producers**  
Steven Boyd  
Cherylanne Martin

**Production Supervisors**  
Peter 'Toby' Tobyansan  
Russian Crew:

Martin Krauka  
Lidia Lukes  
Fiji Crew:  
Nicola Olsen

**Production Controller**  
Jim Turner

**Production Co-ordinators**  
Christine Haas  
Dhana Rivera

**Fiji Crew:**  
Michelle Turner  
Gabriela Rios

**Memphis Crew:**  
Mika Saito

**Production Manager**  
Russian Crew:  
Sergei Gurevich

**Unit Production Manager**  
Cherylanne Martin

**Location Managers**  
Mary Morgan-Erlagon

**Russian Crew:**  
Kirill Minkovetsky

**Memphis Crew:**  
Timothy Hilman

**2nd Unit Director**  
Steve Starkey

**Assistant Directors**  
Alan B. Curtiss  
Josh McLaglen  
David M. Bernstein